





## 2012년도 해양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(경감)

과 목	형 법	응시번호	성 명	
-----	-----	------	-----	--

17. 甲은 피고인 丙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인 乙에게 위증을 하도록 시켰다. 乙은 丙을 모해할 의도는 없었으나 甲이 시키는 대로 위증을 하였다. 판례에 따른 때 옳지 않은 것은?(판례에 의함)

- ① 甲은 모해위증교사죄, 乙은 위증죄가 성립한다.
- ② 모해의 목적도 형법 제33조의 신분개념에 포함된다.
- ③ 판례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았다.
- ④ 甲과 乙은 결국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.

18. 다음 중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?(판례에 의함)

- ① 甲은 인접한 옆집 밭에서 좋은 토질의 흙을 퍼내어 자기 밭으로 옮겼다.
- ② 지게꾼 甲은 단독으로 물건을 위탁받아 운반 중 그 물건을 영득하였다.
- ③ 상점의 점원이 주인이 출타한 틈을 타서 상점물건을 감추어 동생에게 주었다.
- ④ 우편배달부가 배달 중인 봉합된 봉투 안에서 돈을 뽑아내어 영득하였다.

19. 판례에 의할 때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는?

- ① 대표이사가 은행을 기망하여 대부받은 금원을 보관 하던 중 횡령한 경우
- ② 장물보관자가 그 보관한 장물을 횡령한 경우
- ③ 명의신탁받은 토지를 승낙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
- ④ 절취한 자기앞수표로 음식값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은 경우

20. 다음 중 몰수할 수 없는 것은?

- ① 도박하여 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
- ② 장물 운반시 사용한 자동차
- ③ 장물 취득 후 장물을 처분하여 받은 자동차
- ④ 살인의 보수로 받은 자동차

21. 채무자 乙과 채권자 丙과의 사이에 돈사에서 사육되는 乙의 돼지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후 乙이 점유하던 중, 또 다른 채권자 甲이 乙과 그 돼지에 대해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역시 乙이 점유하고 있었다. 그 후 甲은 돈사에 있는 돼지들을 임의로 반출하였다. 甲의 죄책은?(판례에 의함)

- ① 절도죄
- ② 횡령죄
- ③ 권리행사방해죄
- ④ 배임죄

22. 사생아 甲은 실부 乙이 생모 丙을 폭행하고 甲자신을 호적상 자로 등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은 乙을 살해하였다. 甲의 죄책은?(판례에 의함)

- ① 보통살인죄
- ② 존속살해죄
- ③ 무죄
- ④ 상해죄

23. 甲은 변심한 애인 丙女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친구 乙에게 丙女를 강간하도록 부탁하고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. 그런데 그 후 乙은 마음을 바꾸어 丙女를 살해하였다. 甲과 乙의 죄책은?(판례에 의함)

- ① 甲은 강간죄의 교사범, 乙은 살인죄
- ② 甲은 강간죄의 예비, 음모와 살인죄의 교사범, 乙은 강간죄의 예비, 음모와 살인죄
- ③ 甲은 무죄, 乙은 살인죄
- ④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, 乙은 살인죄

24. 甲과 乙은 절도를 공모하고 丙의 집으로 가서 乙은 밖에서 망을 보고 甲이 丙의 집으로 들어갔다. 甲이 내실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丙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乙은 도망하였다. 乙이 도망간 한 참 후에 丙이 들어와서 누구냐고 소리치자 甲은 몽둥이로 丙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물건을 훔치지 못한 채 도주하였다. 甲과 乙의 죄책은?(판례에 의함)

- ① 甲과 乙 모두 강도상해죄
- ② 甲은 준강도미수와 상해, 乙은 특수절도 중지미수
- ③ 甲은 준강도미수와 상해, 乙은 특수절도미수
- ④ 甲은 강도상해죄, 乙은 특수절도미수

25. 甲은 맹견을 피하여 집으로 뛰어든 乙에게, 乙이 강도의 목적으로 자기 집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乙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밖으로 끌어내 개에게 물리게 하였다. 甲의 행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긴급피난을 책임조각사유로 보면 오상피난이 된다.
- ②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면 오상방위가 된다.
- ③ 긴급피난을 책임조각사유로 보면 오상방위가 된다.
- ④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면 오상피난이 된다.





# 2012년도 해양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(경감)

과 목	형 법	응시번호		성 명	
-----	-----	------	--	-----	--

**40. 다음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**

- ①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.
-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 이더라도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.
- ③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함에 있어 기망수단을 이용한 경우 횡령죄와 사기죄의 상상적경합범이 된다.
- ④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.

**41. 동산 또는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?**

- ① 계약금을 받은 단계에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원래의 계약자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.
- ②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은 단계에서는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.
- ③ 부동산의 악의의 후매자에 대하여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.
- ④ 원래의 계약자에 대하여 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후매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.

**42. 다음 중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**

- ①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처리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에게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이 문제되어 대여금반환을 요구받자 한 달 후 타인으로부터 돈을 다시 빌려 이를 변제하였다.
- ② 피해자와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임의로 타인에게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.
- ③ 주식회사의 설립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주식인수인과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설립등기 절차를 마친 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.
- ④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관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.

**43. 정당방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다. 잘못 기술된 것은?**

- ㄱ.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만 포함되고 적극적 반격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.
- ㄴ. 피해자의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설분의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- ㄷ.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이상 피해자의 반격이 있었다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- ㄹ. 소송상 청구가 부당한 주장이었다면 정당방위의 요건인 급박부당한 범의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.

- ① ㄱ, ㄷ
- ② ㄷ, ㄹ
- ③ ㄴ, ㄹ
- ④ ㄱ, ㄴ

**44.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**

- ① 범인은닉·도피죄에서, 범인이 제3자를 교사하여 자기를 은닉·도피하게 한 경우,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.
- ② 증거인멸죄에서, 범인이 제3자를 교사하여 자기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경우,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.
- ③ 위증죄에서, 범인이 제3자를 교사하여 자기사건에 관한 공판절차에서 위증하도록 교사한 경우,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.
- ④ 무고죄에서,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하여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, 피무고자는 교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**45. 성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판례에 의함)**

- ①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고, 여기서의 '생리적 기능'은 육체적 기능을 의미하므로 정신적 기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② 甲이 乙女와 춤을 추면서 乙女の 의사에 반하여 순간적으로 유방을 만졌더라도 乙女の 성적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.
- ③ 甲이 심신미약자인 乙女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,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온 乙女와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甲에게는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- ④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, 그 외에 성욕을 자극, 흥분,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# 2012년도 해양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(경감)

과 목	형 법	응시번호		성 명	
-----	-----	------	--	-----	--

46.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 
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호적공무원이 신고사항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 이를 수리하여 호적부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.
- ②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.
- ③ 사망자, 가공인의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실재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오인할 염려가 있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.
- ④ 인감증명서를 발행하는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였어도 대리인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.

47. 간접정범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?

- ①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범할 때 타인의 범위에는 국가기관도 포함된다.
- ② 불가벌적 과실범을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성립도 가능하다.
- ③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서 처벌되지 않는 피이용자를 이용한 경우에 이용자는 교사범이 될 뿐이며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.
- ④ 물리적 폭력 하에 있는 도구는 간접정범의 피이용자가 될 수 없다.

48. 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이 잘못 표기된 것은?(판례에 의함)

- ① 甲은 乙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시행하였으나 甲에게는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. (상해치사죄)
- ② 甲은 乙과 강도를 공모한 후 甲은 대문 밖에서 망을 보았는데, 乙은 피해자의 거소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. (강도치상죄)
- ③ 甲은 강도의사로 과도로 택시운전수를 위협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급좌회전 하다가 그 충격으로 甲의 과도에 찔려 상처를 입었다. (강도치상죄)
- ④ 甲은 乙과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후배를 동원하여 식칼을 들고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는데 공포심을 느낀 乙이 베란다 창문으로 8미터 아래로 뛰어 내리다 상해를 입었다. (강도치상죄)

49.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판례에 의함)

- ①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 후 부도처리 되었다고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.
- ② 뇌물의 내용에는 일체의 유형, 무형의 이익이 포함되므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하며, 이 경우 기수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은 행위가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한다.
- ③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따로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.
- ④ 뇌물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'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' 제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.

50.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.
- ② 자신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 절도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.
- ③ 임야의 매각처분을 위임받은 다음 임야를 100만원에 매도하고 50만원에 매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를 믿은 위임자에게 50만원만 교부하고 50만원을 착복한 경우 사기죄와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.
- ④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후 그 분양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와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.